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여자프로배구 4개 구단 초청경기가 열렸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대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19세 비앙카 안드레스쿠 US 여자오픈 첫 우승

19세 신예 비앙카 안드레스쿠(캐나다·15위·사진)가 2000년대생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섰다.

안드레스쿠는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레나 윌리엄스(38·미국·8위)를 2-0(6-3 7-5)으로 물리쳤다.

안드레스쿠는 이번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남녀를 통틀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선수가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안드레스쿠가 사상 최초다.

안드레스쿠는 캐나다 국적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남자 단식에서도 캐나다 국적의 우승자는 나온 적이 없다.

또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US오픈 단식 본선 무대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2017년 월블던에서 처음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무대를 밟은 안드레스쿠는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4번째 무대에서 우승을 일궜다. 모니카 셀레스가 1990년 프랑스오픈에서 모니카 셀레스가 세운 '최소 메이저대회 출전 우승' 기록(4회)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안드레스쿠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2회전 진출이었다.

지난 시즌이 끝날 때 세계랭킹이 178위에 불과했던 안드레스쿠는 올해 3월 BNP 파리바 오픈, 8월 로저스컵 등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프리미어급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파란 성장을 자랑했다.

안드레스쿠와 윌리엄스의 이번 대회 결승은 역대 메이저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 사상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대결이었다. 뉴스

빛고을 광주, 배구 열기 뜨거웠다

女프로배구 4개구단 초청 경기

3일간 6천명 관람...전국에서 발걸음 선수들 멋진 플레이 경기력으로 화답

지난 주말 빛고을 광주는 배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광주광역시 여자프로배구 초청경기'가 6일부터 8일까지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려 배구에 목말랐던 시민과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 선수들은 시범경기임에도 정규시즌처럼 몸을 날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팬들은 사흘 내내 관람석을 가득채우며 프로배구의 진수를 만끽했다.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KGC

인삼공사 등 여자프로배구 4개 팀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하고 배구 저변 확대 및 팬들의 감응을 풀어주기 위해 광주에서 시범경기를 가졌다.

빛고을체육관에는 사흘 동안 6천여명의 관중들이 찾았다. 광주는 물론 부산, 경남, 전남, 전북에서도 많은 팬들이 발걸음했다.

열기는 대단했다. 빛고을체육관은 경기시작 4시간 전부터 선수들의 모습을 담으려는 팬들로 북적였다.

팬들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응원을 보내며 광주에서 처음 열린 프로배구 열기를 맘껏 느꼈다. 본 경기에 들어가자 함성은 더욱 커졌다. 강한 스파이크가 코트를 강타하거나 멋진 수비가 나올 땐 경기장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열성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위해 응

원 문구를 적어온 플래카드를 흔들며 연호했다. 팬들은 김주향·백목화(이상 기업은행) 문정원·정선아(이상 도로공사) 등 광주·전남에서 초·중·고를 다닌 선수들에겐 더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였다.

승패가 중요한 경기가 아님에도 상대에게 패할 수 없다는 투지를 발휘하고, 국가대표를 역임한 정대영 이호희(이상 한국도로공사)와 표승주(IBK기업은행) 등 에이스 선수들을 풀가동 하면서 여자배구의 묘미를 선사했다.

팬들의 열기가 각 구단들은 다양한 팬서비스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각 팀 주장들이 기워버워보를 해 패한 팀에서 입장 관중 전체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는가 하면, 인삼공사는 자사에서 생산한 정관장 홍삼수를 입장객들에게 한 병씩 지급했다. 경기시작 전에는 선수들의 친필사인인 들어간 배구공을 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경기 후에는 팬사인회를 개최, 팬들과 더욱 가까이하고자 했다. 또 인삼공사는 또 2019-2020시즌 선수들이 입을 새로운 유니폼을 광주에서 첫선을 보여 주목받았다.

광주배구협회는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 건강검진권,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배구팬들은 광주에서도 프로배구 경기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3일 연속 경기장을 찾은 주중철(57·광주 북구 오치동) 씨는 "광주에는 실내스포츠 프로팀이 하나도 없어 프로배구를 보려면 대전이나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서 "광주에도 하루빨리 프로배구팀이 생겨서 많은 시민들과 배구팬들이 겨울에도 스포츠 경기를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27일자 ginguilove@srb.co.kr

양현종, 월간 MVP·투수상 '씩쓸이'

8월 한달 간 평균자책점 0.51

8월은 양현종(KIA 타이거즈)의 달이었다. 양현종이 KBO(총재 정운찬)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공동 시상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월간 MVP'와 '월간 투수상'에 선정됐다.

양현종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솔)'에서 진행된 팬 투표를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한 결과 총점 41.74점을 획득해 36.97점을 얻은 박병호(키움 히어로즈)를 제치고 8월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8월 '신한 MY CAR 월간 투수상'을 수상했다. 월간 투수상은 매월 규정 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 중 평균자책점이 가장 낮은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양현종은 2위 배제성(KT 위즈)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월간 투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8월 한달 간 5경기에 등판해 3승을 거둔 양현종은 35.1이닝동안 단 2실점(2자책)만을 허용하며 KBO 리그 전체 투수 중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0.51)으로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 월간 투수상이 신설된 이래 가장 낮은 월간 평균자책점이다. 특히 8월 4일 광주 NC전에서는 단 99구로 완봉승을 거두며 올 시즌 정규 이닝 기준 최단 시간 경기(1시간 59분)를 만들



어냈고, 지난 8월 28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역대 5번째 1천500탈삼진 기록을 세우는 등 KBO 에이스다운 면모를 선보였다. 양현종의 KBO 월간 MVP 수상은 지난 5월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다.

한편 월간 투수상, MVP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주어진다. 양현종 선수의 모교인 광주동성중학교에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8월27일자 hkk42@srb.co.kr

호랑이 실책 5개로 '와르르'

KIA, 키움전 3-13 대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최대 실책을 범하며 무너졌다.

KIA는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15차전에서 3-1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3연패가 됐다.

이날 승부는 일찌감치 결정됐다. 선발로 나선 강이준이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것이다. 강이준은 1.1이닝 동안 6피안타 1피홈런 4볼넷 1탈삼진 5실점 5자책점을 기록했다.

강이준의 부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야수들이 실책 5개를 범하며 자멸했다. 계속되는 실책에 점수차는 벌어졌고 추격의지는 점점 상실됐다.

8월27일자 hkk42@srb.co.kr

경기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만 김주찬(1루수), 황윤호(2루수), 고정혁(3루수) 등이 실책 4개를 범했다. 때문에 1회초 4점, 2회초 2점, 3회초 1점, 4회초 2점, 5회초 2점 등을 내주며 무너졌다.

7회말에는 KIA 타선이 살아나는 듯했으나 실책성 주루플레이가 나왔다. 1사 만루 상황에서 박찬호가 우측 담장을 맞추는 안타를 쳤다. 2루 주자 한준수와 3루 주자 이창진은 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오정환은 진루하지 않았다. 1루에서 출발한 오정환이 2루에 도착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다. 결국 1루에는 박찬호와 오정환이 한 베이스를 밟았고, 오정환은 아웃처리 됐다.

팀이 실책에 흔들리자 경기 후반에는 유격수 박찬호도 집중력이 흐려졌다. 9회초 포구에 실패, 상대 타선에 출루를 허용했다.

안치홍 시즌 조기 마감

손가락 부상...재활에 전념

주장 안치홍(KIA 타이거즈)이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안치홍은 7일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손가락 통증 때문이다. 지난 6월 LG전에 안치홍은 3루 베이스를 터치하다 오른손 중지가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정밀검진을 받고 남은 기간 재활군에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홍은 올해 105경기에 출전해 362타수 114안타(5홈런) 타율 0.315 4도루 49타점 45득점을 기록했다. 그가 규정타수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은 3년만이다. 2016시즌 군 전역 후 합류한 탓에 36타수(10경기)출전해 8안타를 기록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 규정타수를 채우지 못한 시즌은 없다.

안치홍의 빈자리는 황윤호 등 다른 젊은 선수들이 메울 전망이다. 8월27일자 hkk42@srb.co.kr